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10 [43~45]

(가)

너는 서해 **빨**을 적시는 노을 속에  
 서 본 적이 있는가  
 망망 빨 발 속을 헤집고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  
 한쪽 귀로는 내소사의 범종 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는 선운사의 쇠북 소리를 듣는다  
 만권의 책을 쌓아 올렸다는 채석강 절벽  
 파도는 다시 그 만권의 책을 풀어 흘러  
 빨 발 위에 책장을 한 장씩 넘긴다  
 이곳에서 **황혼**이야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  
 내소사 대웅보전의 **낙살문 연꽃** 몇 송이도  
**활짝** 만개한다  
 회나무 가지를 치고 오르는 청동 까치 한 마리도  
 만다라\*와 같은 불립 문자로 탄다  
 곰소의 빨 강을 건너 **소금을 저** 나르다 머슴 등허리가 되었다는  
 저 소요산 질마재도 마지막 술 빛으로 익는다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  
 해는 수평선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 송수권, 「대역사(大役事)」 -

\* 만다라: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망라한 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

(나)

**젓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  
 이나 굽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  
 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휘휘 후리  
 거나,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얹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둥치  
 를 타고 내려가, 철쭉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흠살  
 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  
 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댕바  
 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대상을 현장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반복적으로 대상을 불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은 작품의 주요한 제재로 사용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가)는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빨'을 매개로 '바지락을 캐는' 것과 '소금을 저 나르'는 것을 연결한 것은 '대역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황혼'이 '사방으로 던진' '가슴 뜨거운 불꽃'에 '낙살문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하는 것은 만물이 서로 화답하고 교감함을 나타내고 있군.
- ③ (가)에서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은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자연이 위로를 건네는 것을 나타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젓은 바람 속'에서도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는 겨울 나뭇가지의 모습은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는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음을 드러내고 있군.



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지들'이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둥치'는 감나무의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춧기둥'의 역할을 하는군.
- ③ '새'는 '실가지 하나에 얹'아 나뭇가지가 '그 무게를 견딜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나게 해 주고 있군.
- ④ '땅속'이 지닌 '칠혹' 같은 어둠의 이미지는 '산 가지'의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과 대비되고 있군.
- ⑤ '땅심'이 베풀어 주는 '배려'는 '실뿌리'를 통해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는군.



<보기>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은 작품의 주요한 제재로 사용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가)는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읽기 전 활동

(가)에서는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자연물이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고, 이러한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시 모두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시상이 전개될 것임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

너는 서해 뺨을 적시는 노을 속에  
서 본 적이 있는가  
망망 뺨 발 속을 헤집고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  
한쪽 귀로는 내소사의 범종 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는 선운사의 쇠북 소리를 듣는다  
만권의 책을 쌓아 올렸다는 채석강 절벽  
파도는 다시 그 만권의 책을 풀어 흘러  
뺨 발 위에 책장을 한 장씩 넘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서해 뺨을 적시는 노을 속에 서 본 경험에 대해 묻고 있는 화자입니다. 화자는 서해 뺨에서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이 '내소사의 범종' 소리와 '선운사의 쇠북' 소리를 듣는다며 서해 뺨의 풍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채석강 절벽이 '만권의 책을 쌓아 올렸'다는 유래를 통해 절벽에 치는 파도의 모습을 '만권의 책을 풀어 흘'린다며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황혼이야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  
내소사 대웅보전의 녀살문 연꽃 몇 송이도  
활짝 만개한다  
회나무 가지를 치고 오르는 청동 까치 한 마리도  
만다라\*와 같은 불립 문자로 탄다  
곰소의 뺨 강을 건너 소금을 저 나르다 머슴 등허리가 되었다는  
저 소요산 질마재도 마지막 술 빛으로 익는다  
\* 만다라: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망라한 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보기>에서 언급했듯 서해에서 황혼이야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황혼의 시간에서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 '녀살문 연꽃'이 만개하고, '청동 까치 한 마리'도 불립 문자로 타오르며 '소요산 질마재'도 마지막 술 빛으로 익어가는 황혼의 풍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서 언급했듯 황혼의 조명을 받는 서해에서 만개하는 연꽃, 타오르는 까치와 붉은 빛으로 변하는 산이 던져진 '가슴 뜨거운 불꽃'에 화답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  
해는 수평선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 송수권, 「대역사(大役事)」-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황혼의 시간에서 '대역사'를 이루는 다양한 풍경들에게 누군가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이라며 수고했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읽은 <보기>를 참고했을 때 자연이 대역사를 이루는 존재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황혼의 시간이 끝나가며 '해'가 '수평선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으로 시가 끝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해가 지기 직전, 황혼의 시간을 맞이하는 서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입니다. 시에서 화자가 서해의 다양한 자연물들이 서로 화합하고 위로하며 '대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읽어 나간다면 시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

жат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휘휘 후리거나,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겨울 감나무의 가지들을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화자입니다. 화자는 겨울 감나무의 가지들은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휩방 놓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흔들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무의 가지가 겨울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서로 부딪치거나 서로 엉키지 않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등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이렇게 흔들거리는 가지들이 모두 '주춧기둥 같은 등치'에서 뻗어나간 것이 신기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흔들거리는 가지들과는 달리 '등치'는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얹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등치를 타고 내려가, 칠혹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살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렇듯 흔들리는 가지 위에 얹은 새의 무게는 나무 등치를 타고 내려가 땅속의 실뿌리의 흙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새의 무게를 견딜 힘을 땅은 다시 올려 보내줍니다. <보기>에서 언급했던 '생명의 원리'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나무와 새, 그리고 땅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땅의 힘으로 얹디 얹은 가지는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런 생명의 원리를 '감동'으로 표현하며 감동을 그동안 모르고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가 겨울날 감나무를 보며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시입니다. 나무의 가지, 등치, 뿌리, 새, 땅과 같은 자연물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이루어내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면 시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가)의 경우 서해 뻗, 채석강 절벽, 내소사 대응보전과 같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화자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 감나무라는 자연물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공간의 이동과 화자의 태도 변화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대상을 현장감 있게 그리고 있다.

→ (가)의 경우 '듣는다', '넘긴다', '만개한다'와 같이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대상을 현장감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 역시 '흔들거린다'와 같이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인 감나무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반복적으로 대상을 불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반복적으로 대상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가)의 경우 서해의 뻗이, (나)의 경우 감나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이들을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답인 선지입니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 '서 본 적이 있는가'를 영탄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에는 영탄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자의 현실 비판적 의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도 영탄적 구조인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가 드러나지만, 여기서도 비판적 의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나)의 경우 시각적 심상으로 시상을 종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오히려 (가)에서 '가라앉는다'와 같이 시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보 기>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은 작품의 주요한 제재로 사용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가)는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① (가)에서 '빨'을 매개로 '바지락을 캐는' 것과 '소금을 저 나르'는 것을 연결한 것은 '대역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군.

→ (가)에서 '빨'을 매개로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의 모습과 '소금을 저 나르'다 허리가 굽은 소요산 질마재를 연결하여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연결되는 천지 만물의 관계는 '대역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② (가)에서 '황혼'이 '사방으로 던진' '가슴 뜨거운 불꽃'에 '낙살문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하는 것은 만물이 서로 화답하고 교감함을 나타내고 있군.

→ (가)에서 '황혼'이 '사방으로 던진' '가슴 뜨거운 불꽃'에 '낙살문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서로 화답하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③ (가)에서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은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자연이 위로를 건네는 것을 나타내고 있군.

→ (가)에서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은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자연이 건네는 위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나)에서 '젓은 바람 속'에서도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는 겨울 나뭇가지의 모습은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나)에서 '젓은 바람 속'에서도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는 겨울 나뭇가지의 모습은 나무의 포용력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 전이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과대해석으로, 항상 선지를 해석할 때 근거를 찾아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⑤ (나)에서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는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음을 드러내고 있군.

→ (나)에서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는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감동을 모르고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① '가지들이' '제 꺾양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가지들이' '제 꺾양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역량 안에서 한세상을 자유롭게 흔들거리며 살아간다는 것으로, 작고 큼에 관계 없이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② '둥치'는 감나무의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춧기둥'의 역할을 하는군.

→ '둥치'는 나무의 기반이 되는 감나무의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의미하는 시어입니다. 따라서 '둥치'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주춧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③ '새'는 '실가지 하나에 얹'아 나뭇가지가 '그 무게를 견딜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나게 해 주고 있군.

→ '새'는 아주 약한 가지를 뜻하는 '실가지 하나에 얹'아 나뭇가지가 새의 작은 '그 무게를 견딜힘'을 지니고 있어 부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음을 드러나게 해 주고 있습니다.

④ '땅속'이 지닌 '칠혹' 같은 어둠의 이미지는 '산 가지'의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과 대비되고 있군.

→ '땅속'이 '칠혹' 같은 어둠의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 단순히 땅 속의 어둠의 이미지로, 땅속은 '땅심'을 가진 나무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산 가지'의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과 대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땅심'이 베풀어 주는 '배려'는 '실뿌리'를 통해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는군.

→ '땅심'이 베풀어 주는 '배려'는 '실뿌리'를 통해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산 가지'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는 근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